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고령농업인 소득 안전망 역할 '톡톡'

2011년 도입 ... 광주·전남 누적 가입자수 1200명 전국 가입건수 8137건 평균 월 지급액 92만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중인 '농지연금' 사업이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26일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주·전남지역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는 12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가입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며 연간 최대인원을 기록, 노후생활 안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8월까지 전국 농지연금 누적 가입 건수는 8137건이며 평균 월 지급액은 약 92만원이다.

농지연금제도는 소득격차가 커진 도시와 농촌사

이의 격차를 줄이고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농지담보형 연금제도다.

가입조건은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 전, 담, 과수원이면 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감정평가액의 80%나 공시지가 중 하나를 적용한 평가금액에 따라 매월 연금형식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통해 매달 지급되는 돈은 가입연령, 담보농지평가가격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농지의 평가액이 3000만원이라면 65세는 12만7000원, 70세 12만1000원, 80세 16만3000원,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 지급방식에 따른 가입가능 연령

구분	종신형	기간형		
		5년형	10년형	15년형
가입연령	65세이상	78세이상	73세이상	68세이상

* 가입자 연령기준(부부모두 아님)

95세 26만9000원, 95세 46만5000원 등을 매달 지급 받게 된다.

또 5년, 10년, 15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갈 수 있는 기간형 농지연금의 경우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은 종신형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다.

동일한 3000만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신청하면 10년형 기준으로 65세는 22만8000원, 70세는 23만9000원, 80세는 25만8000원, 90세 28만원,

95세 46만5000원이다.

연금수령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올해 3월부터는 소비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 동안에 일반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는 '전후후박형' 상품이 출시돼 가입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이와함께 담보 농지에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으며, 농지연금 가입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

소유농지를 담보로 어느 정도의 연금수령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fplove.or.kr)에서도 가능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전, 추석맞이 복지시설 봉사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전국전력노조위원장 최철호)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및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한전은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맞이 봉사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개 사업소 2만여명 봉사단원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제공>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가 지난 21일 '2017 상하이 K-Food Fair' 만찬행사에서 중국 유력 식품 전문지 '당연주주간' 간 한국산 농식품 중국시장 진출 업무 협력에 관한 MOU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T 제공>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국가 성장동력 창출 선도

한전, 17개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6일 한전 본사에서 지자체, 빅데이터 유관기관, 전력그룹사 등 17개 기관과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 관련 협력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과 17개 기관은 상호간 데이터 공유, 빅데

이터 기술 및 협력, 인재양성과 공동연구 수행, 빅데이터 사업모델 공동추진과 공공 확산사업 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전은 전력그룹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가공과 활용을 통해 전력 산업 전체 데이터의 활용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8월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 분석 등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에너지 산업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로 급변함에 따라 한전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번 MOU를 계기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한전 본사 비전홀 및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워크 &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빅데이터 미래포럼, 빅데이터 사업성과 발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빅데이터 전략과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 수출 농수산물업체 시장개척 지원

농식품부·aT '상하이 K-Food Fair' B2B 수출상담 ... 4250만달러 실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최근 대중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신규 바이어 발굴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 21~22일까지 상하이 훙차오 소피텔 호텔에서 '2017 상하이 K-Food Fa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하이 K-Food Fair는 중국 최대 경제 및 상업도시로 한국식품 유통·판매의 허브(Hub) 상하이에서 개최됐으며, 47개 국내 수출업체와 중국 권역별 바이어 130개사가 상담에 참가하는 대규모 한국 농식품 B2B 수출상담회로 진행됐다.

상담회에선 김치, 유자차, 인삼제품, 스낵류, 건강식품, 김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져 총 425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선 특히 과자류, 음료, 면류 등 소비재 식품 바이어 이외에도 중국 전역의 식재료 바이어를 초청해 장류, 어묵, 유자진액, 발효식초, 과일 농

축액 등 국내 식재료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aT가 올해 중국 식재료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업체와 매칭 상담을 지원한 것은 최근 중국 소비자의 한국식품 구매기피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한국식품 판매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 소비자의 거부감이 덜한 식재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중국 K-Food Fair는 시안, 청두, 우한에서 B2B 상담회와 B2C 소비자체험 행사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B2B 상담회 개최로 내실화를 기했으며,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 중국 유명 식품 전문지인 '당연주주간'과 한국 농식품의 중국 식품시장 진출 업무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중국시장 분야별 전문가가 수출업체 대상으로 한국식품 통관 및 비관세 장벽, 중국 상표권 대응 및 중국시장 마케팅 방안 등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21일 진행된 만찬행사에서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양황을 초청해 현장에서 김치, 음료, 소스 등 한국식품을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는 장면이 생중계돼 수출업체와 바이어의 눈길을 끌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나주, ㅅㅅ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급 매”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주인직매 010-3605-5000